

Thematic Radar

Ep. 34 러시아산 원유 제재의 위협

- 스웨덴에서의 미국-중국 협상에서는 잠정적 합의만 도출. 러시아 원유 관련 제재가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
-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8/8까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대해 고관세율 부과를 예고
- 제재 시행시 중국, 인도에 대한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압력 높아질 수 있음. 다음주 트럼프의 결정 예의 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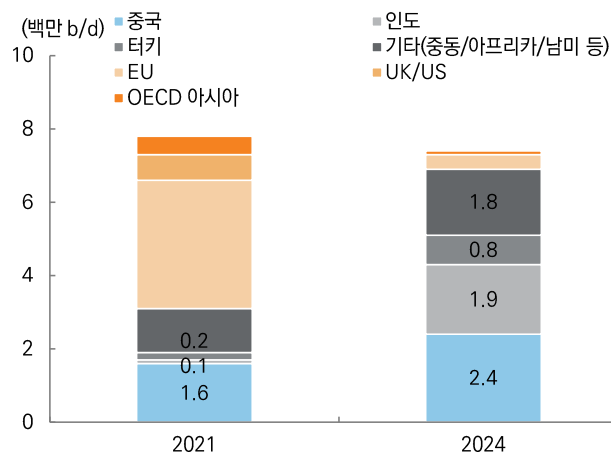
기대와는 달리 29~30일 스웨덴에서의 미중 협상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양국은 잠정적으로 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합의한 모습이지만 확답은 주지 않았다. 미국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의 러시아 원유 수입과 관련한 2차 제재 위협이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고관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경고했고, 중국은 에너지 주권을 지키겠다고 답변해 수입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실제로 미국 상원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러시아 제재 법안(Sanctioning Russia Act of 2025)이 준비 중이다. 러시아산 원유, 가스, 우라늄을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최대 50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80명 이상의 상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마련해주는 러시아 원유 수입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해당 제재가 시행되면 후폭풍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우선 러시아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무역 협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원유 가격 상승도 자극할 수 있는데, 관세 위협으로 수입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경우 대부분의 러시아 공급분이 시장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가 이전처럼 국제 유가 대비 할인폭이 높지 않아 제재를 피하고 싶은 국가들은 수입을 중단할 인센티브가 높아졌다. 기존 러시아 원유를 취급하던 인도 정유사들의 경우 UAE, 미국산 원유 수입 옵션을 검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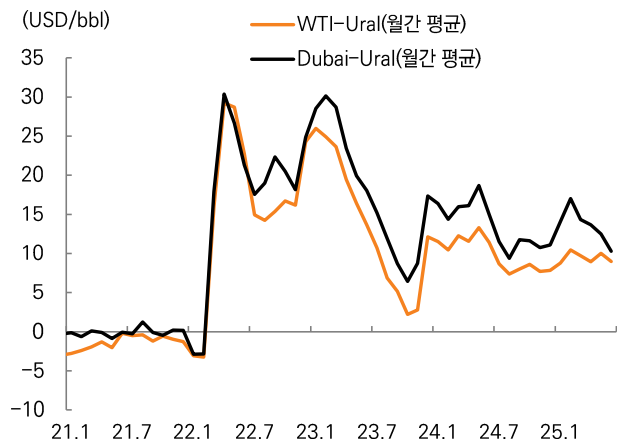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미국도 중국과 무역 합의를 성사시키고 유가 상승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역 협상에서 에너지 수출 증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재로 러시아산 에너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단되면 미국산 에너지 수출이 용이해진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WTI도 트럼프의 제재 발언 수위가 높아지며 이번주에만 6% 이상 올랐다. 8/8까지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트럼프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주요 러시아 원유 수입국 변화



자료: IE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WTI, Dubai 원유 대비 우랄산 원유의 디스카운트 폭



자료: CEIC, OPE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